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Hana Infinity

하나은행

2025 March

FX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이*정/0117465**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정/0117465**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Ⅲ. 엔/원 환율	7
Ⅳ. 유로/원 환율	7

하나은행

하나은행

이*정/0117465**/2025-02-28 17:34:20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금 리

2 월 동향

미 행정부 관세 이슈와 이의 연준 매파 영향 등으로 국내외 금리 급등세 시현. 이후 연준 의사록이 매파적이었으나, 미 경기 지표 부진이 급격해진 가운데 한은 금리인하 결정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전환에 영향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유예 소식 등이 금리 변동성 높인 가운데 미 제조업 업황 호조 및 한은 매파 성향이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

■ 월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명령과 이후, 1개월 유예 표명 등이 국내외 금리 등락 변동성을 높인 가운데, 미 제조업 확장 국면 지속에 따른 연준 매파 성향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세 시현. 이후 미 서비스 지표 부진에도 한은 총재 매파적 발언으로 추세 이어진 국면

- 월 초, 미 행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 서명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국내외 금리 하락 출발. 이어 관세 1개월 유예 방침 속 미 제조업 지표 확장 국면 등으로 상승 전환
- 이후, 미 서비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측면이 국고채 금리 하방에 영향. 하지만 이어진 한은 총재의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신중한 접근 언급 등이 금통위 매파 성향으로 인식되며 상승 추세 이어진 양상

연준 의장 매파적 금리 경로 언급 속 전월 CPI 상승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트럼프 관세 부과 유예 입장에도 한은 총재 추경 언급 등으로 변동성 확대된 양상

■ 중반, 미 관세 이슈와 파월 의장 매파적 발언, 미 CPI 상승 등이 금리 상승에 영향. 이어 관세 부과 유예 소식 등 호재에도 한은 총재 추경 언급이 변동성 확대시키는 가운데 상승 지속

- 중반, 트럼프 행정부 철강 관세 부과와 상호 관세 이슈 뚜렷해짐에 따른 국내 경기 우려감 증대 속 미 기대인플레 상승 등이 상충하며 금리 혼조세. 이후 연준 의장 매파 언급에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
- 이어 미 1월 CPI가 시장 예상 크게 상회하며 연준 통화정책 약화 가능성 반영 후, 관세 부과 유예 소식 등으로 하락 전환 시현. 이후 한은 총재 추경 언급 등이 장중 변동성 확대 속 상승세 이어진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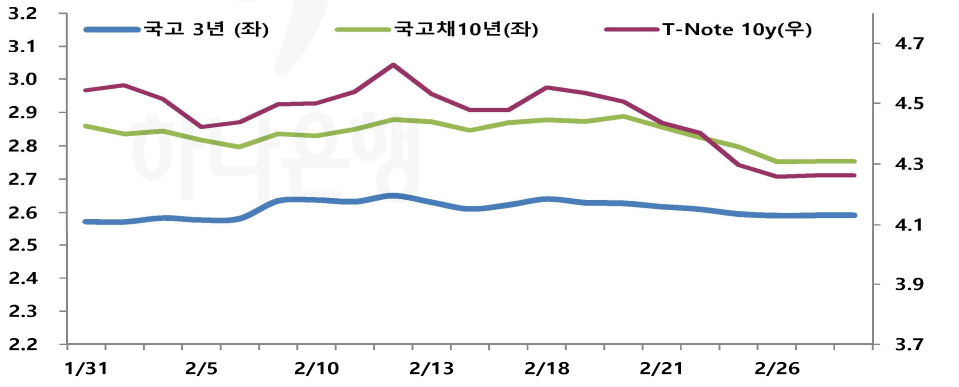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 하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 키운 가운데 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과 한은 국내 정치리스크 등을 반영, 경기 부진 방어를 위한 금리 인하 결정 등으로 하락 마감

■ 후반, 1월 연준 의사록이 매파적이었으나 금통위 기대 반영으로 하락추세 보인 국고채 금리는 이어, 미 주요 경제지표 부진, 시장 예상 부합한 금통위 결과 등으로 하락 이어지며 마감

- 후반, 1월 연준 의사록의 양적 긴축 일시 중단 가능성 확인 등이 미 국채 금리 하락과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금통위에서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는 양상 시현
- 이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경기둔화 우려감을 키운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 영향의 국고채 금리 방향성 반영 속에 국내 경기 부진을 우려한 한은의 비둘기적인 금리인하 결정 등을 반영하며 하락 흐름 이어진 가운데 마감

2월 평균
국고채(3년): 2.61%
T-Note(10년): 4.45%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이*정/0117465**/2025-02-28 17:34:20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3 월 전망

미 관세 이슈 부각이 연준 금리 경로에 매파적 영향 통해 국내외 금리 하단 제한 하겠지만, 실제 부과시 안전자산 선호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대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도 금리 하락 견인할 전망

	1Q25	2Q25	3Q25	4Q25
국고채(3y, %)	2.55(F)	2.50(F)	2.40(F)	2.35(F)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의 디스인플레이션 제약 등을 고려한 연준의 연내 예상 점도표 경로 이탈 가능성 및 매파 성향 등이 금리 하단 제한 하겠지만, 최근 점증된 경기 불확실성 이슈가 다소 그 영향 상쇄할 전망

■ 소비 관련 지표 부진 등 미국 주요 경제 지표 약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대두에도 연준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 변화에 따른 물가 대응 기조 강화에 재차 역점을 둘 전망. 여기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한 추가 인플레이션 우려 등도 크게 고려될 요인으로 판단

- 미 1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0.9%로 큰 낙폭을 보인 가운데 제조업 PMI 지표도 재차 50선을 하회. 이에 따라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하는 측면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도 미국 경기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연준은 이 요인이 중단기적 디스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이에 물가 대응에 대한 연준 매파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상반기 중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중부유럽 종전 협상 진전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며 금리 하단 제한 요인이나, 3월 이후 주요국 관세 부과 이슈 등이 상대적 영향력 확대하며 국내외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압박에 의한 종전 기대감 국면은 지정학적 위험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주요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에 따른 미국을 포함 주요국 경기 약화 가능성 등은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 최근 우크라이나 압박에 의한 종전 기대감 확산 국면은 지정학적 위험도를 낮추는 가운데 유럽 경제 회복력 견인 등을 통해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3월까지 유예되었던 캐나다, 멕시코 및 EU에 대한 관세 부과가 순차적으로 실시될 가능성 속에 이에 따라 특히, EU와의 통상 마찰 확대 등으로 미국 포함 주요국 경기 모멘텀이 훼손될 우려 등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통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을 높이며 상기 요인과 상충이 예상

3월 국고채(3Y) 금리는 2.45%-2.65%

■ 2월 금통위에서 연내 1.9% 물가경로를 유지하였지만, 성장 전망 1.5%로 직전대비 0.4%p 인하. 이는 대내외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추경 등 정책 공조 강화 등 일부 중립적 스탠스 등이 금리 하단 제한할 전망

- 최근 한은 기조는 올해 물가 경로를 1.9%로 유지하였지만 대내 정치불확실성 지속과 대외적 미 통상정책 리스크 등으로 소비 및 수출 등 부정적 영향의 극대화 속에 성장률도 1.5% 안팎으로 하락을 예상. 이러한 경기 중시 스탠스 등은 국고채 금리의 점진적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상기 요인들에 따른 영향 반영하는 가운데서도 추경 등 재정정책과의 공조 강화한 측면 속 그간 금리 인하 영향을 점검한다는 취지 등은 중립적 기조 관점으로 금리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중부 유럽 전쟁의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감 유입 • 국내 경기 약화에 대응한 추경 등한 정책 공조 영향	• 최근 미국 소비, 제조 관련 지표 부진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 한은의 경기 중시 정책 및 추가 금리 인하 전망

자료: 하나은행

이*정/0117465**/2025-02-28 17:34:20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달러/원 환율

2 월 동향

미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發 관세 리스크와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한국 성장세 둔화 우려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에 환율 재차 반등하며 1,460원선 상회 마감

견조한 미 PCE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달러 가치 급등하며 1,470원대 진입 후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가능성 시사에 되돌림 보이며 1,440원대로 하락

■ 월초, 미 신정부 관세정책 이슈로 미 인플레이션 리스크 부각되며 환율은 1,470원대까지 급등 출발했으나 이후 관세 유예에 따른 우려 완화와 고점 인식 속 매도 우위에 하락 전환

- 월초, 미 PCE 반등과 트럼프 관세정책 강행 예고에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환율은 장중 1,470원대 진입했으나 관세 부과 유예 소식과 미-중 협상 기대감에 위험회피 심리 완화되며 급락
- 이후 미 실업률 4.0%와 평균임금 상승 등 견조한 미 고용시장과 트럼프 상호관세 우려에 달러 강세 이어졌으나 고점 인식에 따른 매도물량 유입 영향 속 1450원대 후반에서 상단 제한된 움직임 시현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더욱 약화되었으나, 러-우 종전 협상 가능성과 미 정부 관세 우려 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세 지속

■ 월 중반,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예상을 상회한 미 CPI에 연준 금리동결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도 러-우 종전 기대감과 트럼프 관세 부과 지연 안도감에 1,440원대로 하락

- 중반,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파월 의장 발언과 시장 컨센서스를 웃돈 미 CPI에 연준 금리동결 전망 강화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가능성과 미 관세정책 속도조절 기대에 하락 전환
-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미 소매판매 데이터와 FOMC 의사록 내 언급된 양적긴축 일시 중단 가능성에도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에 하방 경직적 흐름을 보이며 1,440원대 초반에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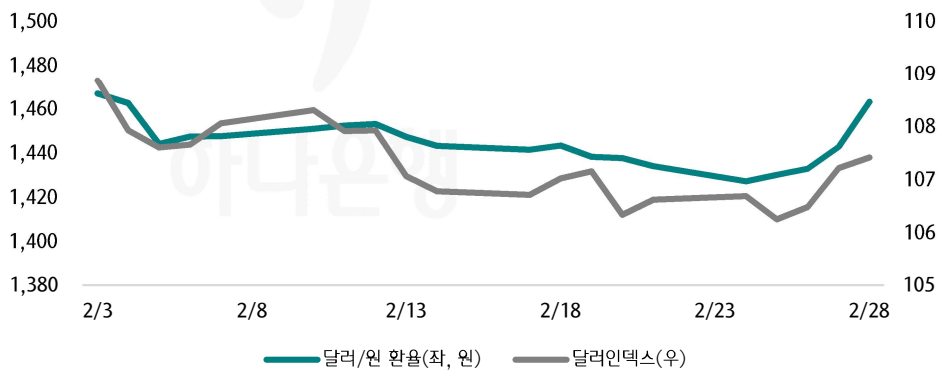
금통위 금리인하 결정과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비둘기파적 결과와 미 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달러 강세에 원화 약세 나타나며

■ 후반, BOJ 긴축 기대를 반영한 엔화 강세와 미 경기 둔화 시그널에 달러 강세 주춤했으나 국내 저성장 우려 등 원화 약세 요인과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에 환율 반등

- 후반, BOJ 추가 금리인상 기대감을 반영한 엔화 강세와 미 소비심리 부진 및 S&P 서비스업PMI 위축세 전환 등 경기 둔화 우려 속 미 예외주의 약화에 달러 약세 나타나면서 1,420원대로 추가 하락
- 금통위 금리인하와 국내 성장률 1.5% 전망 등 부진한 펀더멘털과 미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 전환한 가운데 트럼프 관세 위협 발언에 달러 강세 심화하자 1,460원대 상승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2월 달러/원 평균환율
: 1,445.6
2월말 달러/원 환율
: 1,463.4



이*정/0117465**/2025-02-28 17:34:20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3 월 전망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연준 금리동결 기조 등 강달러 지지 요인과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환율 상승 압력 유지될 것으로 예상. 다만, 미 예외주의 약화와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 등에 변동성 보일 전망

평균	1Q25	2Q25	3Q25	4Q25
달러/원 환율(원)	1,440(F)	1,460(F)	1,420(F)	1,400(F)

미 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연준은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 예외주의 기조가 약화된 측면이 달러의 추가 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판단

■ 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연준이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월 FOMC에서 금리동결 예상됨에도 미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한 점에서 강달러 제한될 전망

- 미 근원PCE가 2% 중후반대에 정체된 국면 이어짐에 따라 3월 FOMC에서 연준 위원은 매파적 스탠스를 견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내 2회 인하 점도표 조정이 없을 경우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될 소지
- 또한,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경기 전망과 소비심리 부진 등에 미 예외주의가 다소 약화됨에 따라 경기 둔화 시그널이 추가 확인될 경우 달러 약세 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잔존한 가운데 우크라전 종결 기대 증대 및 BOJ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 등 상하방 재료 공존에 혼조 국면 지속될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달러 강세 지지력으로 작용하겠으나 러-우 종전 기대감과 BOJ 긴축 전망 등 약달러 요인 혼재로 변동성 장세 지속될 것으로 판단

-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선반영된 시장 불안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수단 활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점을 고려할 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
- 한편,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BOJ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엔화 강세 등 달러 약세 재료 또한 부각되고 있어 달러는 다소 혼재된 방향성 보일 것으로 예상

3월 달러/원 환율 1,430원 ~1,480원 예상

■ 한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원화 강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은이 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와 물가 상승률 안정세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하를 결정하는 등 비둘기파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측면은 환율 하방 경직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특히, 경제심리 위축,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수 회복 제한과 수출 둔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흐름에 영향 미칠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트럼프 행정부 관세 리스크로 인한 달러 강세	• 미 경기 둔화 우려 등 예외주의 퇴색
•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지속	• 러-우 종전 기대감 등 지정학적 불안 완화
• 한국 성장 둔화 전망에 따른 원화 약세	• BOJ 긴축 전망을 반영한 엔화 강세

자료: 하나은행

이*정/0117465**/2025-02-28 17:34:20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종통화

엔/원 전망

최근 일본 물가 상승률 4%를 상회한 가운데 시장 긴축 기대와 BOJ 당국자의 매파 영향 등이 엔화 강세 견인할 전망. 여기에 미국 관세 부과 시점 현실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도 소폭 엔화 강세 견인할 것으로 보임

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1.5
2월 엔/원 평균환율
: 954.3

■ (엔화 동향) 일본 평균임금이 큰 폭 상승했다는 소식에 BOJ 추가 금리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엔화는 강세 출발. 중반, 예상을 웃돈 미 CPI에 연준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이 재차 부각된 가운데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엔화 약세 나타났으나, 일본 당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에 강세로 재차 전환. 이어 주 후반,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일본 CPI와 산업생산 등 견조한 경제지표에 엔화 강세 지속됨에 따라 149엔대에서 마감

3월 엔/원 예상범위
: 965~990원

■ (엔/원 전망) 미국 관세 부과 현실화에 따른 주요 경제권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의 엔화 수요 증가가 강세 모멘텀 유지하게 할 전망. 다만, 일본에 대한 미 관세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었다는 점은 안전 통화 인식을 다소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재차 4% 상회에 따라 시장 추가 긴축 기대 반영 속에 BOJ 당국자의 매파적 영향 반영 등이 소폭 엔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관세 이슈에 따른 주요 경제권 성장 모멘텀 약화 등이 엔화 수요를 통해 강세 지지할 요인. 하지만 관세 이슈가 엔화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된 측면은 안전 통화 인식을 다소 제고할 것으로 보임
- 여기에 최근 일본 물가 상승이 재차 가팔라지면서 시장과 BOJ 당국자의 매파 영향도 엔화 강세 지지할 것으로 보임. 이에 엔/원 환율은 최근 원화 상대적 약세 속 970원 전후 흐름이 예상

유로/원 전망

트럼프의 중부유럽 전쟁 종전 협상 진전은 유로 강세 지지 요인이나 관세부과가 임박함에 따른 미-EU간 무역 갈등 심화에 유로화는 전반적 약세 흐름으로의 전환이 예상

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420
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506.2

■ (유로화 동향) 트럼프의 관세 협상 가능성 언급에 우려가 완화하며 유로화는 강세 출발했으나 견조한 미 고용지표에 약세로 전환. 중반, 러-우 종전 기대감과 ECB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에 강세 보였으나 미국과 유럽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 갈등에 재차 약세를 보임. 이어 주 후반, 트럼프의 대유럽 관세 예고에 통상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약세 지속되며 1.03달러대 마감

3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80~1,520원

■ 유로화는 트럼프 영향을 경로별 반영하며 등락 보일 전망, 첫째 우크라-러시아 종전에 대한 협상 진전 가능성은 전월 후반에 이어 유로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하지만 두번째, 트럼프의 EU 25% 관세 부과 시한 임박 등에 따른 상호 강경 대치 전망은 유로 약세를 상대적으로 크게 견인할 전망. 여기에 ECB 통화 완화 기조 또한 유로 약세 지속 요인으로 판단

- 트럼프의 우크라-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에 따른 영향은 향후 유로 경제의 모멘텀 강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유로 강세 요인으로 예상
- 하지만, 임박한 관세 부과에 따른 갈등 국면이 유로 약세를 확대할 전망 속에 여전한 ECB 통화 완화 기조도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 이에 유로/원 환율은 상대적 원화 강세 속에 1,500원대 소폭 하회 예상

이*정/0117465**/2025-02-28 17:34:20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5년 3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IT] 2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 발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화 시행 국토부,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상향 ~3/3 fed's Goolsbee speaks in moderated Q&A 켄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2	3 한국 휴장, MWC 2025(~6) [휴장] 한국(대체공휴일) 미 1월 건설지출(MoM +0.5%)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ISM 제조업, 구매물가 중 2월 Caixin 제조업 PMI(50.1) 유 2월 HCOB 제조업 PMI[F] CPI, CPI 근원[P] 일 2월 지분 은행 제조업 PMI[F]	4 중국 양회(정협) 중국 양회(정협)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출범 아랍연맹(AL) 특별정상회의 한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0.3) 중 2월 Caixin 종합 PMI(51.1) Caixin 서비스업 PMI(51.0) 유 1월 실업률(6.3%) 일 1월 실업률, 유효구인배율 2월 소비자기대지수(35.2)	5 중국 양회(전인대), 지준일, Be 중국 양회(전인대) 연준 베이지북 공개 한 4Q GDP[P](QoQ +1.2%, YoY +0.1%) 미 1월 제조업수주(MoM -0.9%) 2월 ADP취업자 변동(183k)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유 1월 PPI(MoM +0.4%, YoY +0.0%) 2월 HCOB 종합, 서비스업 PMI[F] 일 2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6 ECB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75%로 4회 연속 금리 인하 단행 (2)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 성장 리스크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경기에 대한 우려 시사 한 2월 CPI(MoM +0.7%, YoY +2.2%) CPI 근원(YoY +1.9%) 미 2월 Challenger Job Cuts(YoY -39.5%) 유 1월 소매판매 (MoM -0.2%, YoY +1.9%)	7 [기업] 엠디바이스 코스닥 상장 ISLE 2025(디스플레이· 종합 시스템 전시회,~9) 미 1월 소비자신용잔수 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143k) 제조업 임금변동, 실업률(4.0%) 시간당 평균 임금(MoM +0.5%) 중 2월 수출/입(YoY +10.7%, +1.0%) 유 4Q GDP[F](QoQ +0.1%, YoY +0.9%) 고용[F](QoQ +0.1%,YoY +0.6%)	8
9	10 한미 연합연습 지휘의 맹폐(~20) 유 3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12.7) 일 1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 2월 경기관찰조사 현황, 전망(48.6, 48.0) 일본 경상수지 독일 무역수지 SA	11 [채권]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한 3월 1~10일 수출/입(YoY +0.8%, +0.3%) 미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102.8) 1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일 4Q GDP[F](QoQ +0.7%, YoY +2.8%) GDP 민간소비[F](QoQ +0.1%) 일 2월 통화량 M2(YoY +1.3%)	12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트럼프 행정부, 미국에 모든 크메국 대상으로 철강· 알류미늄 등에 25% 관세 부과 OPEC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 미 2월 CPI(MoM +0.5%, YoY +3.0%) CPI 근원(MoM +0.4%, YoY +3.3%)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1.0%) 일 2월 PPI(MoM +0.3%, YoY +4.2%)	13 선물· 옵션 듀시만기일 [선물· 옵션 듀시만기일] (1)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 옵션 네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 (2) 두자자들은 스프레드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따라 기존 잔고의 만기연장 규모 결정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미 2월 PPI(MoM +0.3%, YoY +3.5%) PPI 근원(MoM +0.3%, YoY +3.6%) 유 1월 산업생산(MoM -1.1%, YoY -2.0%)	14 미국 선물· 옵션 듀시만기일 [기업] 시율보증보험 코스피 상장 한 2월 실업률(2.9%) 수입물가(MoM +2.3%, YoY +6.6%) 수출물가(MoM +1.2%, YoY +8.5%) 미 3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15
16	17 엔비디아 GTC 2025(~21) : 세계 최대 규모의 AI 개발자 컨퍼런스로 삼성, SK, LG 등 주요 IT 기업들 참여 한 2월 통화공급 M2(MoM +1.0%) 미 2월 소매판매(MoM -0.9%), 소매판매 근원(MoM -0.4%) 3월 뉴욕주 제조업지수(5.7) 중 2월 실업률(5.1%) 광공업생산(YoY +5.8%) 소매판매(YoY +3.5%)	18 [미국 FOMC(~19)]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4.25%~4.50%로 동결, 지난해 3회 연속 인하 후 첫 동결 결정 (2) 파월 의장은 견고한 경제 등으로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며 속도 조절 시사 [채권] 미국 1년물, 20년물 국채 입찰 미 2월 주택착공건수(MoM -9.8%) 광공업생산(MoM +0.5%), 설비가동률 수입물가(MoM +0.3%, YoY +1.9%) 수출물가(MoM +1.3%, YoY +2.7%) 3월 뉴욕 연은 서비스업 경기활동	19 [BOJ 금융정책위원회]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0.5%로 25bp 인상,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17년 만의 최고 수준 (2) 우에다 총재는 경제, 물가에 따라 금리 인상 결정한다고 언급 유 2월 CPI[F](MoM -0.3%, YoY +2.5%) CPI 근원[F](MoM -1.0%, YoY +2.7%) 일 1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F] 2월 수출/입(YoY +7.2%, +16.7%)	20 BOE 통화정책회의, EU 정상회 [휴장] 일본(춘분의 날)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4.50%로 25bp 인하, 정책위원 중 7명 25bp, 2명 50bp 인하 주장 EU 정상회의(~21) [IT] 중국 산업정보통신부 일간 스마트폰 출하량 미 2월 기존주택매매(MoM -4.9%) 선행지수,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3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유 1월 건설 생산(MoM +0.0%)	21 한 2월 PPI(YoY +1.7%) 3월 1~20일 수출/입(YoY +16.0%, +7.7%) 유 3월 소비자기대지수[P] 일 2월 전국, 국내 CPI 캐나다 소매판매 MoM(직전 2.5%,예상 -0.4%)	22
23/30	24/31 [3.2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종목 확대 3월 소비자심리지수(95.2) 미 3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P] 유 3월 HCOB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P] 일 3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P] [3..31]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재개	25 보아오 포럼(~28) [보아오 포럼(~28)] (1) 중국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경제포럼. 아시아 국가간 교류 통한 경제발전 등 목적 (2) 올해 회의에서 아시아 경제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 맞춘 보고서 발표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미 2월 신규주택매매, 건축허가[F] 3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26 [채권]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미 2월 내구재 주문[P] 일 1월 동행지수, 선행지수[F] 2월 PPI 서비스 미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영 CPI 상승률YoY(직전 3%, 예상 2.7%) 프랑스 소비자 신뢰지수(직전 93, 예상 91)	27 미 4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T] 2월 도매재고[P], 소매재고 유로존 ECB 휴회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미 GDP 정정률QoQ(직전 3.1%, 예상 2.3%) 미 PCE 물가지수	28 미 2월 PCE, 근원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3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일 3월 도쿄 CPI, CPI 근원 미 근원 PCE물가지수 MoM 미 개인소득 MoM	29 [월말] 정기 주주총회 시즌 12월 결산 법인 감사보고서 마감 시한
30	31					

이*정/0117465**/2025-02-28 17:34:20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정/0117465**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은행

이*정/0117465**/2025-02-28 17:34:20